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43
결재일자	2016.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성북구 인권센터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왕주미	김정아	이경환	02/23 김병환
협 조 자	총무담당 인사담당 자치행정담당	이주남 서경택 이철암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영화
영화 <귀향> 관람 계획

2016. 2.

감사담당관
[인 권 센 터]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영화 영화 <귀향> 관람 계획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권친화적 조직 분위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인권영화를 관람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10조 제1항
- 2016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 [특별정책과제]

II 운영방향

- 인권의 개념과 관점의 이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인권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풀어감으로써 인권과의 거리를 좁히고 인권친화적 조직분위기 조성에 기여
- 우리의 역사에서 잊혀졌거나 잊혀져가고 있는 위안부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권영화 관람
- 영화관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권의 핵심가치를 내재화함

III 세부운영내용


- **관람일시** : 2016. 3. 7.(월)~3.8(화) 16:00~ (127분간)
※ 3월 8일 :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 **관람대상** : 성북구 희망 직원 200명(회당100명)
- **관람장소** : 아리랑 씨네센터 3관

■ **관람영화 : 귀 향**

영화 귀 향(鬼 鄉 : Spirits' Homecoming, 2015), 조정래 감독

14년간의 준비 기간과 제작후 8개월의 노력 끝에 7만5천명의 후원자와 소액기부, 재능기부 등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다.

각본과 연출, 제작을 맡은 조정래 감독이 지난 2002년 나눔의 집(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써 내려 간 휴먼드라마이다.

	<p>"여기가 지옥이다 야"</p> <p>1943년, 천진난만한 열네 살 정민(강하나)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 손에 이끌려 가족의 품을 떠난다.</p> <p>정민은 함께 끌려온 영희(서미지),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기차에 실려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한다.</p> <p>제2차 세계대전, 차디찬 전장 한가운데 버려진 정민과 아이들...</p> <p>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일본군만 가득한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이었다.</p> <p>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아픈 이야기!</p>
--	--

.. 감독 : 조정래 / · 출연 : 강하나, 최리, 손숙, 서미지, 오지혜 등 / 상영시간 : 127분

■ **관람신청**

- 각 부서 및 동에서 희망자를 취합하여 신청하거나 개별 메일(담당자 : 왕주미)로 **2016. 3. 3.(목) 까지** 명단 제출

■ **소요예산 : 총800천원**

- 관람료 : 800천원(400천원 ×100명×2회)
- 예산과목 : 행정지원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대외협력체계 활성화, 직원후생복지 지원,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대효과**

-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권옹호자로서의 자세와 인권감수성 향상

IV

행정 사항

- **전 부서 및 동** : 관람대상자를 선정하여 명단 통보
- **행정지원과** : 관람대상자 상시학습시간 2시간 인정 및 차량배치.

붙임 : 1. 영화 관람 신청 서식 1부
2.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자료 1부. 끝